Life p/15

가구 업계, 온라인 몰 전쟁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제314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PGA 박성준 깜짝 준우승

황된 '황의 법칙'

황창규 KT 회장 취임 1년… 늘어난 건 호화 사옥뿐

관련기사 9p

'허삼관' 엄마로 돌아온 하지원 16p

그리스 좌파 압승… 유로존 위기

IS 숲군 팔로워 추적해보니

첩첩산중 현대중공업… 수주 언제?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확산

레임덕 자초하는 '우병우 카드'

2015년의 데자뷔 2007년 1월 17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교례회 모습.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귓속말을 나누던 두 사람은 8년이 지난 2015년 1월 대통령과 총리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국정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은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 달 2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전언에 따르면 회고록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진 민감한 내용들은 담지 않았다. 다만 치수정책으로서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에 대한 일단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시절 야당과 함께 반대해 무산된 세종시 수정안 무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진 배경과 당시의 뒷이야기,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은 총 12개 장 800쪽에 달한다. 1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장 스토리와 현대 시절의 개인적 일화를 담고 있다. 제목은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이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재임 시절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마지막 12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담았다.

회고록은 전직 장관과 대통령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매주 회의를 하고 두 차례 워크숍을 열어 역사 기술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 1년 10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현대 재직 당시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출간해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또 서울시장 재임 시절 뒷이야기를 담은 '온몸으로 부딪쳐라'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등 여러 권의 자서전을 낸 바 있다. /송병형기자

IS 가입 김군 모방심리?

트위터 팔로워 추적하니…

"I need some money for go there. I'll take part-time job for airplane fee. give me the time."

이슬람국가(IS)에 가입을 원하는 A씨의 트위터 글이다. IS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살 돈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테니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터키 킬리스에서 실종돼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18)을 따라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26일 확인됐다. 세상 모르는 청소년들의 '김군 따라하기' 모방심리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트위터 계정 아이디 'ja*****'을 쓰는 A씨는 여러 IS대원들과 트위터 친구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김군과 마찬가지로 IS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 절차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디 'hab***'인 IS대원과의 대화에서는 먼저 합류한 김군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이 가기만 하면 IS에 합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

1월 22일
@hab and i need some money for go there. i ll take part-time job for airplain fee.:)give me the timw for that
대화 보기

1월 22일
@hab do you know him? @glo
i wanna know his situation before i go there.
he is a first ISIS member of south korea.
대화 보기

isl 12월 11일
Allah is the only one who can understand you completely. After all, He is the one who created you.

1월 22일
@hab surely if i go to turkey , i can join in ISIS?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IS 합류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구체적 계획이 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실종된 김군이 IS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군의 IS 합류 이후 다른 10대들의 모방행동이 따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 김군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김군 실종 후 몇백명이나 증가했다. 대부분 10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뛰어난 영어구사실력과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A씨와 같은 경우는 드물었다. 10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슬람 2세 출신의 젊은이들이 IS에 많이 합류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IS에 2명의 인질이 잡힌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슬람학을 가르치던 교수 외에도 상당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이를 두고 전 세계경제를 강타한 높은 실업률과 고물가 시대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IS의 높은 월급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냥 무풍지대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사진 바라보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주최로 열린 '월남전, 참전 50년 사진전'에서 참석자들이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靑 폭파 협박' 용의자 알고보니 정의화 국회의장 前 보좌관 아들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청와대 민원실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남겨놓은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 출국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 직후부터 함께 일해온 강씨는 의원실에서 외부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앞서 부의장 시절에도 잠시 의원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

에볼라 구호대 귀환 '검역 이상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의료대 1진이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은 귀국하면서 받은 검역 조사에서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4주간의 현지 의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대 1진은 의사와 간호사 등 민·군 보건인력 9명이다. 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간인 3주 동안 별도로 마련된 국내 시설에 격리돼 관찰을 받고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송병형기자

파국이냐 개선이냐

북한 '남북관계 중대시점' 경고

파국이냐 개선이냐. 북한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갈림길에 놓인 중대시점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불신과 대립, 긴장격화의 불씨'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리졸브·독수리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남북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파국 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이것(한미연합훈련)이 바로 대화와 진정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흉심'이자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때 긴장도 완화되고 남북 간 신뢰도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가, 아니면 개선의 궤도 위에 올라서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지금 안팎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통신비·맥주값·차수리비 정말 내릴까

새정치연합 "대기업 독과점 깨면 가능"
'경쟁촉진 3법' 당론으로 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통신비·맥주값·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규제를 통한 경제 민주화에 집중해 온 야당의 새로운 행보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맥주시장·자동차 수리 분야에서의 경쟁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 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 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 캔맥주는 가격(출고가)이 비싸서 부과되는 세금(710원)이 대기업(395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법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촉진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경쟁 제한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 촉진 요소를 도입할만한 분야를 꾸준히 발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고취시키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본회의장 국회 한글 상징물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한글상징물을 설치하고 있다. 국회는 기존의 한자상징물 대신 한글상징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카드, 레임덕 앞당긴다

기자 수첩
송 병 형
<정치부 기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우병우 변호사를 쓰기로 한 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열흘 앞두고 청와대가 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다. 한 야당 중진의원이 격하게 쏟아낸 말은 야당내 분위기를 대변했다.

우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도중 바위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우 변호사는 승승장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만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는 발목이 잡혀 검찰을 떠났지만 불과 1년 만에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바로 그 우 민정비서관이 지난 23일 청와대 인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내각 인사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완구 총리 내정자 발탁 이유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하자 급하게 내놓은 수습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레임덕 조짐이 조기에 나타난 데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야당세가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총리감'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총리 인사의 취지는 우 민정수석 인사로 인해 빛이 바랬다. 야당을 존중했다면 있을 수 없는 청와대 인사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뒤에는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민정수석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우 민정수석이 비서관 시절부터 핵심실세였다는 의미다. 야당과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실세라면 불안의 씨앗은 이미 싹이 튼 셈이다. '우병우 카드'가 레임덕을 앞당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석 행자부 장관 반나절 만에 발언 철회… 야 "사퇴하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다음달 2일 여당 원내대표 경선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궐위에 따라 다음달 2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 제도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PK(부산·경남) 출신 4선의 이주영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TK(대구·경북)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7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비박(비박근혜)계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유철, 정병국, 홍문종 의원은 상황에 따라 정책위 의장 후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그리스 다음은 영국?

재집권 가능성 높은 보수당 'EU 탈퇴 국민투표' 공약… 스페인·덴마크 총선도 주목

그리스 조기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공공연하게 언급해왔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하자 전 세계인의 눈길은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5월로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이 2017년까지 'EU(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리자 "국가채무 절반 탕감하라"

AP·AFP 등 주요외신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득표율 3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로 유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40·사진) 대표는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트로이카'에 채무탕감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치프라스 대표는 "3200억 유로(약 390조원) 규모인 그리스 국가채무의 절반 정도를 탕감해야 한다"며 구제금융 재협상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탕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도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한다면 이탈리아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다른 회원국이 연쇄적으로 탕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월 말까지 새 정부와 트로이카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거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발적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지지율 8년 만에 22%P 급락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EU 탈퇴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EU 탈퇴를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 성향 독립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승부수로 내세웠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독립당과 연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이 예정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화와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극좌파 신생 정당들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U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EU 주요 회원국 10개국 조사 결과, 2007년 52%였던 EU 지지율이 현재는 30%대로 내려앉았다고 이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총선에서도 EU·유로존에 대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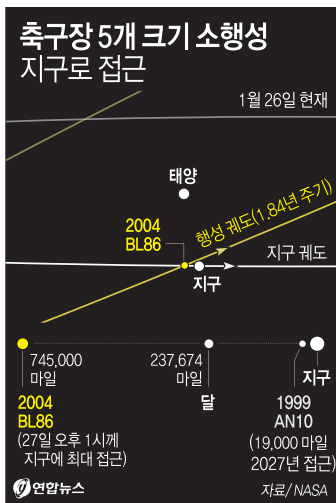
'미스 유니버스'의 미소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계 미인 경연에서 금년도 '미스 유니버스'로 뽑힌 미스 콜롬비아 파울리나 베가가 왕관을 쓰며 미소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축구장 5개 크기 소행성 지구로

오늘 오후 1시 최근접

축구장 5개 크기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2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04 BL 86'으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우리 시간 27일 오후 1시께 지구로부터 120만㎞ 떨어진 곳까지 다가온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3배에 해당해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과학자들은 2004 BL 86이 비교적 커다란 행성인데다 기존 소행성보다 상대적으로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좋은 관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 망원경으로 관측해야 한다.

이만한 크기의 행성이 다시 지구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12년 뒤인 2027년 '1999 AN 10'으로 명명된 행성이다. /장윤희기자

'IS 인질극' 사면초가 일본

백악관·요르단 "테러 협상 어렵다"

IS에 붙잡힌 일본인 인질의 운명이 오롯이 일본 정부 노력에 달리게 됐다. IS가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지만 협조가 긴요한 백악관과 요르단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동을 방문 중인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일본인 인질과 IS 포로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결정은 일본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IS는 일본이 인질 몸값 2억 달러(약 2180억원)를 내놓지 않자 지난 24일 일본인 인질 중 한명인 유카와 하루나(42)씨를 결국 살해했다.

IS는 살해 영상을 공개하며 "남은 인질 고토 겐지(47)를 살리고 싶으면 사지다 알 리샤위(45)를 석방하라"며 몸값 요구를 철회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리스트 리샤위는 2006년 요르단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태다. 요르단 정부는 포로 맞교환이 선례를 만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IS에 억류 중인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씨의 친구 니시마에 다쿠(52)씨가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나는 겐지다' 문구를 든 모습. /니시마에 다쿠 페이스북

한편 SNS에서는 겐지씨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나는 겐지다(I am Kenji)' 게시글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토씨의 친구 니시마에 다쿠(52)씨가 '나는 겐지다'란 문구를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나는 겐지다'는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테러를 입은 후 발간한 최신호의 표제 '나는 샤를리다(Ju Suis Charlie)'에서 따왔다. /장윤희기자 unique@

보험업, '핀테크' 도입 시기상조

은행·증권 등 타 금융권보다 움직임 '미미'

정부가 금융의 '혁신'을 위해 최근 '핀테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타 금융권보다 보험업계의 움직임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에만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활성화를 막는 '금산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란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대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보험업계도 해외에서 핀테크 도입을 통한 효과를 내고 있다.

영국 인슈어더박스(Insurethebox)와 미국 프로그래시브(Progressive)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들은 자동차에 차량운행 기록 장치나 센서를 장착해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사고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스커버리 라이프(Discovery Life)사는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손목 밴드를 활용, 고객의 건강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끼리 단체로 기존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자산 600조원에 달하는 국내 보험업계의 핀테크 추진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국내 보험사들은 핀테크 역량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부재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도 핀테크를 활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업계 자체가 극심한 실적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설계사 채널확보가 핀테크 사업추진보다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과 증권은 발빠르게 핀테크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은 스마트금융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핀테크 전략을 수립 중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6월 은행에서 가능한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IBK 원(ONE)뱅크'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오는 4월 중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금융 상담을 받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PB 서비스를,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고객의 자택이나 직장에서 직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일부 증권사와 다음 카카오가 '증권플러스 for Kakao'란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업계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등 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업계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올해 80조 지원 로드맵 설명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수은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수출입은행 핵심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은은 국가전략산업인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자원개발 등에 전체 여신지원의 57%인 45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의료·물류·금융 등 고용창출효과와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도 2조5000억원의 금융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통일 기반마련을 위한 나진·하산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엔저 심화 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금융비타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2015 경제정책 방향은… 최경환 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금융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확산

금융당국이 올해 학교와 연계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산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13개 기관으로 이뤄진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날 금융교육 강의횟수와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 강의 횟수는 지난해 1만8991건에서 올해 2만1411건으로 늘어나며 교육인원도 101만2205명에서 107만5997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금융교육기관 등이 학교와 연계한 금융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등 체험학습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웹툰과 금융용어 카드, 금융투자 보드게임 등을 통한 컨텐츠 개발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금융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수요맞춤형 교육과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6개 거점지역에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지역협의회 금융교육 인원도 지난해 27만3000명에서 올해 29만9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교육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 인프라와 운영체계 효율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5년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935.68 (-0.41)

코스닥 590.34 (+1.03)

금리(국고채 3년) 2.02 (-0.01)

환율(원·달러) 1082.2 (-0.1)

뉴스&뉴스

부동산담보대출 상담 서비스

●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콜센터와 영업점을 연계한 부동산담보대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운영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고객이 희망한 영업점에서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출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윤종규 은행장이 강조한 모든 채널의 고객 중심 재편에 따라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미래가치 우수기업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26일 우리은행과 손잡고 미래가치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망 창업기업과 지식·기술 우수기업 등 미래의 핵심 강소기업을 상호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신보와 우리은행이 공동 개발한 'V-plus 보증' 상품을 통해 신용 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외에 우리은행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

우리은행은 적용금리를 최대 0.7%포인트(창업 7년 이하면 최대 1.6%포인트)인하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부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고객 300만명 불편

BC·신한·삼성·하나카드 등 사용액 분류 잘못

카드사의 연말정산 오류로 300여만 명 고객이 불편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신한, 삼성, 하나 카드 등에서는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카드사들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

세법상으로는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따로 분류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보고 이를 일일이 수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잘못 집계한 정보가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올라 열흘 넘게 조회됐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가 되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됐다.

삼성·하나·BC카드의 대중교통비 누락으로 불편을 입은 고객은 모두 270만명, 결제금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삼성카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고객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8만명 고객, 174억원 가량의 사용액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18만7000명의 635억원 결제내역도 국세청에 미반영됐다.

BC카드는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번 오류로 누락된 대중교통비는 1인당 3만8000원 정도다.

하나카드는 52만명의 고객이 사용한 172억원 가량의 교통비가 누락됐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간소화서비스에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 고객 민원 등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 규모는 결제 600여건, 약 2000여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키로 했다.

한편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낸 카드 고객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 마감은 내달초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지난 23일 이전 소속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 수정된 정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등록금 납부 이벤트

KB국민카드는 26일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까지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은 할부 수수료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부는 개월수에 따라 다르며 방송통신대학교 등 총 29개 대학에서 ▲3개월 할부 결제 시 2회차부터 ▲6개월 할부 결제 시 3회차부터 ▲12개월 할부 결제 시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 201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등(1명) 300만원 캐시백, 2등(2,014명) 1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카드 고객을 위한 캐시백 행사도 마련됐다.

내달 28일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 후 해외 소재 대학의 등록금을 결제한 고객은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받을 수 있다.

현재 비자와 마스타, JCB, 아멕스, 유니온페이(은련) 등 KB국민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해외 소재 대학은 1600여개다. 등록금 카드 수납 여부와 자세한 납부 방법은 각 대학 교무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납부와 관련해 목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할부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마련했다"며 "해외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금액은 1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금액별로 각각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그리스 총선 여파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이 압승을 거두면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3원 내린 달러당 1080.8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창조 금융 등 4개 핵심과제 선정

신한은행은 26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에서 201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창조적 혁신, 경계를 뛰어넘는 금융미래 선도'를 전략목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임부서장 1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은행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목표를 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창조적 금융 선도 ▲핵심 사업 강화 ▲차별적 역량 제고 ▲따뜻한 금융 실행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임영진 업무총괄 부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 대이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논어에 나오는 군자 3도(君子 三道)인 넓은 포용력(仁), 올바른 판단력(智), 강한 실천력(勇)을 임부서장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상반기 IPO 5년래 최저치

회사채도 회복 못해

지난해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전년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기업공개 시장(IPO)이 여전히 침체됐고, 회사채 총 발행규모도 최근 5년간 정체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정은 전년보다 0.4% 증가한 121조9384억원을 기록했다.

주식의 경우 대형 IPO의 영향으로 발행금액과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제일모직 등 대규모 IPO를 제외하면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IPO는 1052억원(7건)에 불과해 최근 5년 중 가장 부진했다.

반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통방식보다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구주매출을 통한 IPO가 급증했다.

지난해 SPAC IPO는 2881억원(26건)으로 전년(260억원)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SDS(1조1589억), 제일모직(9937억), 쿠쿠전자(2549억) 등 대형 구주매출을 통한 IPO도 다수 발생했다.

이 밖에도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현물출자·출자전환도 활발해 총 12조3694억(12건)을 기록했다. 현물출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위해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며, 출자전환은 기업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와 은행채 발행은 감소하고, 금융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일반회사채의 순조달액의 경우 2512억원에 불과해 2012년(18조8840억원), 2013년(2조587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이는 대내외 경기불안 지속 등으로 일반회사채 발행규모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심화로 A등급 이하의 비중도 감소했다. BBB등급 이하 발행금액도 1조원을 하회해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 이하 비중은 2012년 40.7%에서 2013년 23.8%, 지난해에는 17.2%까지 줄었다. 지난 2012년 4조원을 상회하던 BBB 등급이하 발행 금액도 지난해에는 9266억원에 불과했다. 은행채도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반면 금융채의 경우 신차 할부구입 증가로 인한 할부금융채 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전단채의 경우 269조4000억원을 보여 전년(9조8000억원)에 비해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콜차입 규제에 따라 증권사 전단채 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면서 전단채 발행이 기업어음(CP) 발행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P는 공공기관·일반회사가 주로 발행했다.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정기예금 기초 증가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CP잔액은 전체의 86%를 보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청렴韓세상 KOSHA가 앞장섭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보건 교육실시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한 산업현장, 행복한 대한민국 4대 필수안전수칙이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그 출발은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 4대 필수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기계 · 설비 등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 착용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 설비 ·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비,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

증권업계 "그리스 불확실성 장기화 될 수도"

기업실적도 '부담'… 변동성 장세 예상

그리스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불안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줄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가 이끄는 시리자는 득표율 36.4%로 1위를 차지해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당수인신민당(27.8%)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시리자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4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돼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의석(151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리자는 선거 승리를 선언한 이후 구제금융 이행 조건인 긴축정책을 폐지하고, 채권단과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채권단인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와 긴축정책 철폐를 위한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언했다. 치프라스 대표는 총선 승리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받은 구제금융 이행조건인 긴축정책을 폐지하겠다"며 "채권단과 합의한 이행조건을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이른바 그렉시트와 디폴트(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자 시리자 지지자들이 아테네 대학 앞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가에서도 "그리스의 디폴트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백윤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리자가 제1당이 되더라도 유로존 탈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총선 이후에도 그리스 이슈는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에 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 주식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도 "시리자가 그렉시트를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외신들도 "시리자의 집권 이후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은행들이 ECB로부터 430억 유로(GDP의 20%)를 차입하고 있어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트로이카를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중국발 투자…알리바바 수혜주 '들썩'

중국발 투자 바람에 코스닥 수혜주들이 들썩였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인천에 알리바바타운 조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가 치솟았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엿새째 상승 마감했다. 이 기간 25% 넘게 올랐다.

이날 하이쎌은 8.91%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틀간 14.6% 상승했다.

모바일게임주인 드래곤플라이는 알리바바의 국내 진출시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IT 부품·장비주인 하이쎌의 경우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중국 여행객의 부가세 환급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와 사업 제휴를 체결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떠올랐다.

알리바바의 투자가 성사되면 인천시와 알리바바의 공동 투자를 통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센터 등을 갖춘 알리바바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면담 소식도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최 부총리와 마윈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다양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현지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해 250억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미 상장으로 이 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당시 엄청난 투자차익을 거둬 화제가 됐다.

/김현정기자 hjkim1@

외환은행 노조 농성 돌입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김근용 위원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재감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난 12일 개장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개장한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11일 중 7일 간 거래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배출권 거래소의 총 배출권 거래량은 1380톤, 거래대금은 1155만원에 불과했다.

525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이 총 15억톤인데 거래량이 1380톤에 불과해 거래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월 15일, 19일에서 26일 총 7일 사이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신청량보다 턱없이 적은 배출권을 할당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25개 기업에 업계가 신청한 20억2100만톤보다 4억2300톤 부족한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올 1월 할당했다.

이에 산업계 대다수는 환경부에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 놓은 상태다.

/이보라기자 purple@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토종 > 해외

최근 1개월 국내 5.78%·해외 -0.04%… 작년 해외 절반 수준서 역전

수년째 고공행진한 해외 헬스케어 펀드의 수익률이 주춤한 사이, 국내 동종 펀드들의 선전에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헬스케어 펀드의 수익률은 해외상품의 절반에 그쳤으나 올 들어 역전하는 모습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각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6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주식펀드 9개는 올 들어 평균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1월 효과'로 강세를 보인 중소형 주식펀드(2.93%), 아시아신흥국 주식혼합펀드(2.60%)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며 국내 일반주식펀드(1.33%), 해외주식형펀드(1.47%) 등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지난해 탄탄한 수익률을 자랑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하다.

해외 헬스케어주에 투자하는 주식펀드 4개는 지난 한해 평균 22%의 강세를 나타냈다.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 Class A'이 23.12%로 가장 성과가 좋았지만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22.68%) 등 다른 상품들의 수익률도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미국 헬스케어 펀드시장만 해도 3년간 최고 수익률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1(주식)종류F'와 '동부바이오헬스케어1[주식]Class A' 등 국내 펀드의 성과가 해외 상품을 소폭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난다.

국내 헬스케어 펀드 3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5.78%인 반면, 해외 헬스케어 펀드 6개는 평균 -0.04%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헬스케어 주식펀드 3개의 평균 수익률이 10%로 해외펀드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펀드 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헬스케어 관련 금융상품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주춤하더라도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한다"며 "최소 3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황창규號 KT 단기 성과도 비전도 없어

임기응변식 위기타개책에 조직만 '흔들'

"도대체 황창규 회장이 KT라는 배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는 지 통 감이 안 잡힌다. 단기 성과 위주 경영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 비전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 KT 상당수 임직원들은 뜬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토로하곤 한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의 말이다.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황 회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삼성 출신인 그는 직속 비서실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같은 체제로 개편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이 사내 방송을 강화하는 등 삼성의 조직 문화를 KT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쳐 일궈낸 삼성과 KT의 조직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이 안팎의 냉정한 시각이다.

삼성과 KT는 산업 특성 자체에 차이가 크다. 미래전략실 같은 콘트롤타워를 만든다고 KT가 느닷없이 삼성전자 같이 일사분란한 '독일 병정 부대'가 될 수는 없다. 황 회장은 이런 조직문화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회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분야인 데다 관련 원천기술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실체에 접근하면 거의 허당에 가깝다. 미래비전에 대해 임직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이유다.

KT는 26일 광화문 신사옥 입주식 보도자료를 통해 "황 회장 취임 후 KT가 체감품질 개선, 유통 혁신을 통해 고객 최우선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융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융합사업은 구체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이어져야 매출 증대와 미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글로벌 진출도 황 회장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않다.

황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이 추진하던 아프리카와 동남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KT는 "지난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전자주민증 시스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수주, 르완다 LTE 통신망과 베트남 태양광시설 구축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통신의 해외진출이라는 화려한 선전문구로는 좋다. 하지만 실속을 따지면 과연 남는 장사이기는 할 지 의문이다.

KT는 25년간 르완다 LTE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단 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반면 투자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T 관계자는 "당장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장기적인 사업화를 고려할 때 자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연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에 다르지 않다.

황 회장의 단기 위기 타개책도 장기 비전에 입각한 체계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깝다.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는 회사채 신규 발행을 통해 막고, 8000명이 넘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건비를 줄이고, 단기적인 재무 어려움은 KT렌탈, KT캐피탈 등 '돈 되는 계열사' 매각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이다.

최근 KT는 4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렇게 발행된 회사채는 상반기 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KT렌탈과 KT캐피탈 매각도 이달 말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매각 대금은 신사업 투자 등에 쓰일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약 1조원 규모의 명예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KT렌탈과 KT캐피탈을 매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위기 타개책일까.

황 회장의 행보가 신용불량자의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KT새노조 관계자는 "황 회장이 대규모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장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경영전략은 전무한 것 같다"며 "'1등 KT'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언제쯤 어떤 성과를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 매출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美서 성능 인정 받은 삼성전자 프린터

바이어스랩 선정 최우수 제품상 수상

삼성전자 프린터와 복합기가 미국의 사무기기 전문 평가기관인 '바이어스랩(BLI, Buyers Laboratory Inc.)'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바이어스랩 2015 윈터 어워드(Winter Award)'에서 5개 부문의 '최우수 제품상(Pick awards for outstanding performance)'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의 흑백 프린터와 복합기 라인업상(Monochrome Printer/MFP Line of the Year Award)'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의 흑백 프린터 및 복합기 시리즈는 ▲탁월한 성능,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 ▲편리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흑백 프린터와 복합기 라인업상'을 받았다.

김광석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개발1획그룹 그룹장 상무와 미국의 사무기기 전문 평가기관인 바이어스랩의 게리 오루크(Gerry O'Rourke) 디렉터가 지난 21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올해의 라인업상'과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프린터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중소 기업용 프린터 부문에서는 NFC 기술이 탑재된 'ProXpress C2620DW'와 'C2670FW'가 각각 'A4 컬러 프린터 최우수 제품상'과 'A4 컬러 복합기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했다.

삼성의 태블릿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의 패널을 접목한 복합기 'MultiXpress M5370LX'는 'A4 기업용 모노 프린터 최우수 제품상'을, 기업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A3 복합기 'MultiXpress X4300'은 '21~30ppm A3 컬러 복합기상'을 받았다.

삼성 흑백 레이저 복합기 'Xpress M2885FW'는 '에너지 효율 최우수 제품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다섯 번째 수상작을 내놨다.

송성원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전략마케팅팀 팀장 전무는 "삼성전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비용 혁신적인 프린팅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인정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KTDS 신임 사장에 김기철 KT 부사장

KT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인 KTDS는 26일 김기철 KT IT기획실장 부사장을 KTDS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기철(사진) 신임 사장은 IBM 서비스사업본부 실장과 구KTF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비즈니스부문장 등을 거친 IT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다. 김 사장은 KTDS 수장의 역할 뿐 아니라 KT IT기획실장 부사장도 겸임한다.

김 사장은 "올해를 변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다"며 "기가급 속도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효과적인 IT지원을 넘어 리딩하는 IT서비스 전문업체로 한 단계 도약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IT역량 극대화 ▲전문 IT서비스 체계 강화 ▲그룹 내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주와 수행 ▲정도경영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최대한 빠르게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임사에 이어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 김 사장은 현장 근무 등으로 인해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의 영상질문에 대답하며 신임사장으로서의 포부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IT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G전자 글로벌 모니터 시장 공략 강화

시네뷰 모니터 라인업 대폭 확대

LG전자가 글로벌 모니터 시장 공략을 위해 21:9 화면비를 갖춘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LG전자는 올해 21:9 화면비의 시네뷰 모니터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모니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게임은 물론 영화 감상에 적합하며 화면을 최대 4개로 나눌 수 있는 '화면 분할' 기능으로 멀티태스킹이 더욱 편리하다.

LG전자는 올해 21:9 시네뷰 모니터 라인업을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12개 시리즈 20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4/29/25인치 등 다양한 크기에 곡면/평면 등 다양한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게임에 최적화한 제품, 두 대를 이어

붙여 사용하는 멀티제품 등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ysw@

금호아시아나, 내일 새해 첫 로비음악회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28일 오후 6시 15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올해 첫 번째 로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현희와 박주현, 테너 김승직, 피아니스트 최연재 등이 약 1시간 동안 성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보리밭', '님이 오시는지', '희망의 나라로' 등 우리나라 가곡과 유명 오페라의 명곡을 선보인다.

사측은 보다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가사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

지난해 10월 로비음악회 공연 모습.

이재용 부회장 주주 달래기 나섰다

투자자 달래기·경영권 승계 안정적 여건 확보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배당을 늘리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배당 규모를 늘리는 배경에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 배당금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시가배당률은 1%대로 3~4%선인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 그동안 배당을 늘리라는 외국인 투자기관들의 압박이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함에 따라 본격적인 3세 승계 과정을 밟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주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배당금을 2013년 대비 30~50%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2013년 2조1600억원을 배당한 삼성전자가 증권가의 예상대로 40%가량 배당 규모를 늘리면 배당금 총액은 3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1만4300원이던 주당 배당액도 2만원대로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당 확대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배당금 성격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1.7%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배당금의 경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발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그동안 등한시됐던 주주 증시 정책이 강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별배당금 성격이라는 문구"라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방향성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H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는 "2014년도 실적에 대한 배당금 증액은 이미 삼성전자 측이 특별 주주 환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배당 증액 압력이 거세지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작년 영업익 25% 감소

LG화학은 지난해 매출 22조5778억원에 영업이익 1조3108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24.8%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5조3723억원, 영업이익 2316억원, 순이익 1094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26.8%, 순이익은 38.2%가 각각 감소한 실적이다.

사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둔화됐으나, 경쟁우위의 성과 창출은 지속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석유화학부문은 매출 17조2645억원, 영업이익 1조1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6.1%가 각각 감소했다.

정보전자소재부문은 매출 2조8074억원, 영업이익 1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11.3%, 영업이익은 58.3%가 각각 감소했다.

전지부문은 매출 2조8526억원, 영업이익 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100.9% 각각 증가했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0.4% 감소한 22조48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설투자(CAPEX)는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조79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내역은 석유화학부문의 SAP(고흡수성 수지) 8만톤과 AA(아크릴산) 16만톤 증설, 정보전자소재부문의 OLED 조명, 전지부문의 중국 자동차전지 공장 신설·폴리머전지 증설 등이다.

조석제 LG화학 사장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석유화학부문에서 매출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제품 수급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사장은 "LG화학은 꼭 필요한 투자를 과감히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 설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roman@

아파트 화재원인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지난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화재사건의 원인이 김치냉장고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대유위니아'인 것으로 메트로신문이 확인했다.

국내 김치냉장고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유위니아 딤채가 인기 제품이라 제조사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

그러나 김치냉장고 화재 사건은 대유위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서 출시한 제품도 마찬가지다. 김치냉장고의 특성상 오랜시간 한곳에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사용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국내 시판중인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화재가 시작된 사건은 180여건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유위니아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왔다.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치냉장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김치냉장고 딤채 출시 20주년을 맞아 현재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 점검을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품 점검을 해주고 김치용기를 증정하는 무상클린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김치냉장고는 대부분 10년 이상 된 노후 제품으로 냉각장치와 기판에 쌓인 먼지가 화재의 원인이다"며 "소비자 중 60%가 10년 넘게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3년에 한 번은 김치냉장고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삼성토탈, 대산중학교에 시설자원금 4000만원 지원

삼성토탈은 지난 23일 대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사측에 따르면 대산중학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이용되는 '사랑방'이다.

삼성토탈 측은 "체육관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삼성토탈은 이날 시설 지원금과 함께 한뫼오케스트라에 트럼펫 등 악기 4점도 함께 전달했다.

삼성토탈이 지난 23일 대산중학교에 냉난방 설비 설치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삼성토탈 제공

삼성토탈 직원들로 구성된 음악동호회 회원들은 대산중학교 한뫼오케스트라 음악동아리에 재능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삼성SDI 작년 4분기 영업익 14% 늘었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72억29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4.37%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9101억180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0.97%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288억4400만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당기순손실에 제일모직 주식 처분 이익과 지분법 이익, 삼성엔지니어링 보유주식 가치 하락과 PDP 등 중단사업 손익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지 사업은 신제품 출시와 물량 확대를 통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을 견인했다.

소형전지는 신시장용과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확대됐고 자동차용 전지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물량 증가로 매출이 늘었다. ESS는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케미칼 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전자재료 사업은 견조한 전방산업 수요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은 개선됐고 편광필름도 실적이 나아졌다.

삼성SDI는 "이는 잠정치로 향후 확정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톱스타 A양이 궁금해?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폭스바겐코리아가 강한 힘과 내구성으로 담금질을 거듭한 대형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아렉에 신형을 26일 국내에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름을 딴 투아렉은 2002년 첫선을 보인 뒤 2010년 전면 변경된 2세대 모델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서 8만대가량 팔린 폴크스바겐의 대표적 4륜구동 모델이다.

2006년엔 155t에 달하는 보잉747기를 끄는 데 성공하고, 2009년부터는 지옥의 랠리라 불리는 다카르랠리에 참가해 3년 연속 우승을 일궈내는 등 힘과 내구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형 투아렉은 2011년 출시된 2세대 모델에 각종 첨단 안전·편의 기능과 함께 디자인을 입혔다.

사고 발생 시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줘 후속 사고를 방지하는 2차 추돌 자동 제어 시스템, 윙 미러의 LED 깜빡임으로 사각지대에 포착된 차량이나 높은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드 어시스트를 기본으로 탑재했다.

아울러 8인치 화면이 달린 한국형 RNS850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2개의 스피커를 갖춘 다인 오디오 시스템, 360도 뷰 카메라, 피로경보 시스템, 트렁크 이지 오픈 기능 등의 편의사양이 추가됐다.

유로 5(유럽연합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를 충족하는 V6 3.0 TDI 엔진은 8단 팁트로닉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56.1kg.m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6초, 최고속도는 시속 220㎞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속도가 줄지 않고 일정 기간 주행할 수 있는 코스팅 기능이 더해져 공인 복합연비는 ℓ당 10.9㎞(도심 9.9㎞·고속도로 12.3㎞)로 향상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5g/㎞로 이전 모델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

외관은 최신 바이-제논 헤드라이트를 탑재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4개의 수평 라인으로 변경해 좀 더 강인하고, 웅장한 인상으로 탈바꿈했다. 실내는 은은한 흰색 컨트롤 조명 등을 채택하고, 각종 버튼을 정밀 가공해 누르고 잡는 느낌을 개선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신형 투아렉이 작년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티구안과 쌍두마차를 이뤄 올해 수입 SUV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3.0 TDI 블루모션 7720만원, 프리미엄 8670만원, R-라인 9750만원이다.

/김종훈기자 fun@

수주가뭄… 체면구긴 현重

대우조선·삼성중공업, 고부가가치 LNG 수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올해 첫 수주를 끊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유조선으로 출항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대한해운과 현대LNG해운으로부터 각각 2척씩, 총 4척의 17만4000㎥급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한국가스공사가 10년 만에 발주하고 지난해 수주 확정된 LNG선 4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해당 선박 4척의 계약 총액은 약 8억 달러(8588억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의 최근매출액(2013년, 15조3053억원) 대비 5.6%에 해당한다.

이번 선박은 가스공사 국책 사업으로는 처음 건조되는 ME-GI LNG 운반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과 재액화 장치가 탑재된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드림'호. /대우조선해양 제공

해당 장치가 적용된 ME-GI LNG운반선은 연료효율이 높고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길이 295.5m, 너비 46.4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7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SK해운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입찰에서 확보한 LNG 운반선 2척을 4523억원에 수주했다.

이번 계약금액은 삼성중공업의 최근매출액(14조8345억원) 대비 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17년 9월까지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해당 선박은 2017년부터 20년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LNG기지에서 한국으로 척당 매년 약 47만t의 셰일가스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SK해운 측은 "이번 선박의 건조로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 선형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화물창 원천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외국 기업에 지불해 오던 로열티를 절감하는 등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선업계 글로벌 선두이자 국내 업체 빅3 중 맏형격인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수주 낭보를 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의 수주가 예상된다"며 "특히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유조선 발주가 활발해 조만간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 7년만에 수퍼볼광고 집행 안한다

현대자동차가 7년 간 해왔던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 광고를 올해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제49회 슈퍼볼에 BMW와 렉서스, 벤츠, 도요타, 닛산, 기아차 등 6개 자동차 업체가 광고주로 참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는 제품 광고와 홍보 계획을 작년과 다르게 설정해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슈퍼볼 경기는 미국에서 매년 1억명 이상이 TV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2008년부터 방송 중간에 등장하는 광고물을 제작, 방영해 글로벌업체들과 치열한 광고전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아빠의 육감(Dad's six sense)'이라는 제목의 신형 제네시스 광고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광고를 방영해 미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2014년 슈퍼볼 광고 '아빠의 육감' /출처=광고 캡쳐

현대차는 올해 중반에 미국 시장에 신형 투싼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신차 출시 시기 등을 감안해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이번에 신형 쏘렌토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한다.

삼성전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과 2013년 슈퍼볼 광고를 내보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 펼치는 마케팅 활동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올해는 전략적으로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슈퍼볼 광고를 중단키로 한 것은 실적 부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슈퍼볼 중계를 맡은 폭스TV는 30초당 광고료를 400만 달러(43억원)로 책정하는 등 거액의 광고비를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슈퍼볼 경기 중 11개 자동차 업체의 광고가 나갔으나 올해는 광고를 집행하는 자동차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기자

쌍용차 소통 3년 결실 달성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팬이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고객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고객들과의 양방향 소통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ssangyongstory)를 오픈하였으며, 내실 있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활동과 페이스북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오픈한 지 3년 6개월 만에 10만 팬(Fan)을 달성하였다.

이에 쌍용차는 10만팬 달성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쌍용차와 함께하고 싶은 10명의 친구를 초대하는 '친구소환 1+10 이벤트'를 비롯해 ▲매일 1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운의 룰렛' ▲10만km에 가장 근접한 주행거리가 표시된 인증샷을 공유하는 팬에게 추첨을 통해 주유상품권과 오일교환권을 증정하는 등 오는 30일까지 다채로운 고객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티볼리'의 TV CF를 활발하게 공유하여 신차 알리기에 동참해 준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공유 이벤트도 펼쳐진다. CF 영상을 블로그, 게시판, SNS 등에 가장 많이 공유한 참가자를 각 주별로 집계하여 발표하며, 가장 많이 공유한 참가자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종훈기자

효성·동원 기부문화 확산 릴레이

효성이 동원과 함께 26일부터 열흘간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사회공헌 릴레이 이벤트를 벌인다. 소셜팬과 기업들의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의 염원을 담은 이번 이벤트는 효성과 동원 두 기업이 함께 뜻을 모아 '동원과 효성이 함께하는 참치는 사랑을 터치'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되었다.

효성은 지난 14일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yfriendhyosung)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소셜팬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77가구에 참치&햄 세트를 기부했다. 전달물품으로 쓰인 참치캔과 햄의 제조사인 동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좋은 취지의 활동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성과 함께할 뜻을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사의 SNS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이름으로 기업이 물품을 기부하는 1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품은 효성 77개, 동원 77개가 준비되어 총 154가구에 기부될 예정이다. 효성은 이번 동원의 참여가 향후 지속적인 기업들의 참가로 이어져 SNS를 통한 기부문화 릴레이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타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기자

연초부터 막오른 '면세점 전쟁'

불황 속 성장에 제주·인천공항·서울 입찰 이어져
한화갤러리아·현대아이파크몰·부영 등 진출 선언

롯데 잠실면세점 /롯데면세점 제공

을미년 불꽃 튀는 '면세점 전쟁'이 시작됐다.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면세시장을 두고 롯데, 신라를 비롯해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현대아이파크몰 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사는 물론 부영건설까지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국내 면세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 2011년 5조3000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최근 해마다 두자릿수 안팎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매출 증가율이 2~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면세점은 수익성이 가장 높다. 그만큼 불황 속 '돈이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런 성장 속에서 정부는 최근 비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3개, 제주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관광객 등의 수요도 풍부할 뿐 아니라 공항면세점과 같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도 없어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 부산 2개, 제주 2개,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아산 각 1개 등 총 17개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1개씩,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두 개의 면세점이 있다. 하지만 오는 3월 21일자로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말 신규 특허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결과 신라와 롯데면세점, 부영건설 세 곳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함께 서울 시내면세점에도 주요 유통업체들이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에는 6개의 면세점이 있는데, 롯데 3곳, 신라 1곳, 워커힐 1곳 , 동화 1곳 등이다. 신세계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관,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점에 면세점을 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직접 나서며 현대아이파크몰까지 진출을 선언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매출 2조원을 기록하는 인천공항면세점의 입찰도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천공항면세점은 구역을 12개로 나눠 중견·중소기업에 4개, 일반 및 대기업에 8개를 배정키로 했다.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입찰설명회에는 현 입점 업체인 롯데, 신라는 물론 신규 입점을 노리는 신세계, 한화 등 유통업체들이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세계 면세업계 1위 DFS그룹과 2위 듀프리도 현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현재 면세사업은 거의 유일하게 안정적 성장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라며 "특히 올해 면세시장은 사상 최대인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면세점을 둘러싼 각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다논과 함께하는 고그릭 페스티벌"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논은 26일 서울 이태원 그리스 레스토랑 '엘그레코스'와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다논과 함께하는 Go GREEK Festival' 이벤트에서 다논의 그릭 플레인을 활용해 엘그레코스의 쉐프가 개발한 '바나나 허니 그릭 요거트 스무디'를 선보이며 매장을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과 신메뉴 주문 고객들에게 '다논 그릭 플레인'을 무료로 증정한다. /풀무원다논 제공

신세계그룹 3월부터 정년 60세 조기연장

4단계 직급, 호칭 '파트너'…인사제도 전반 혁신

신세계그룹은 올해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조기 연장하고, 인사제도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향후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직급단계는 기존 6단계에서 역할중심 4단계로 재편된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기존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역할 중심의 4단계 직급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직급체계 변화에 따라 직급 호칭은 '파트너'라는 새로운 호칭이 사용된다. 이는 신세계가 대외적으로 상생,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승진과 보상체계는 '임금 경쟁력, 성과주의, 상생'의 3가지 가치를 모두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임병선 신세계그룹 전략실 인사팀장 상무는 "새로운 인사제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 고용 안정·임금 안정·열린 기회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형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롯데百, 사상 첫 백화점 여성점장 탄생

롯데백화점이 여성 인재들을 주요 보직에 내세우며 '여성점장' 시대를 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초 있었던 인사이동을 통해 지난해 3명이었던 여성 점장을 총 7명으로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영플라자, 아울렛보다 매출 규모가 큰 백화점 점장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인재가 임명된 것.

이민숙 관악점장(왼쪽), 이주영 안산점장. /롯데백화점 제공

이번 인사를 통해 백화점 점장 자리에 오른 이들은 이민숙(45), 이주영(46)씨로 각 관악점장, 안산점장으로 발탁됐다.

이민숙 관악점장은 지난 2011년 롯데 영플라자 청주점장으로 임명되면서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첫 여성점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주인공이다. 서천여자상고를 졸업한 후 1988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미아점, 청량리점에서 식품·가정팀장을 지낸 '영업통'이다. 영플라자 청주점장으로서 점포 운영능력을 인정받아 관악점장으로 발탁됐다.

이주영 안산점장은 목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GS스퀘어에 입사했으며, 2010년 롯데쇼핑이 GS스퀘어를 인수함에 따라 롯데쇼핑으로 전적했다. 이 점장은 판촉·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청량리점 가정팀장, 영플라자 대구점장을 거쳐 안산점장으로 임명됐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여성 인재는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특히 여성 고객들과 접점에서 만나고 여성 판매사원들과 소통해야 하는 영업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 인재들이 차별화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과 지원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LG생건, 화장품 '보닌 BB 액션 원샷 플루이드' 출시

LG생활건강은 올인원 남성화장품 '보닌 BB 액션 원샷 플루이드'를 출시했다.

스킨·로션·에센스 성분을 담은 고농축 에센셜 올인원 제형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다. 피부 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톤 업 캡슐'과 잡티를 커버해주는 '컬러 캡슐'이 투명한 에센셜 플루이드 속에서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보정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 8일까지 CJ몰에서 보닌 BB 액션 원샷 플루이드를 구매하고 우수 후기를 남긴 고객 100명에게 '보닌 트리플액션 & 선'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입맛 잡는 손맛 경쟁

외식업계, 수제 바람 거세

최근 수년간 먹거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외식업계가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계 생산 방식보다 안전성 측면이 높아 소비자들도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SK플래닛이 지난해 10월까지 '수제' 관련 버즈 약 52만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사이에 31% 이상 늘었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도 절반 이상을 넘었다.

핸드메이드 바람은 간편하게 즐기는 간식거리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돌코리아의 '트리플바 블루베리'는 일률적인 기계 생산 대신 손으로 만든 과일 스낵이다. 한 손에 잡히는 싱글팩으로 구성돼 아이들 영양간식은 물론 직장인들의 식사 대용으로 인기다.

죠스떡볶이가 원조 부산어묵인 삼진어묵과 제휴해 선보인 '수제어묵고로케'는 매장별 100개 한정으로 판매 중이다. 매운 떡볶이와 함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표 메뉴로 손꼽히면서 하루 평균 1만 4000개씩 팔리고 있다.

시카고에 본점을 두고 있는 가렛팝콘샵은 매일 소량 생산한 수제 고메이팝콘을 제공한다. 방부제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뜨거운 열기로만 옥수수 커널을 튀겨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풀무원 '알래스칸특급'은 100% 알래스카에서 어획한 A등급 명태 연육을 주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어묵이다. 손으로 직접 빚어 탄력 있는 식감과 모양을 살렸으며, 밀가루·합성보존료·합성착향료·산화방지제 등 6가지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매일유업의 'MCC고베식당'은 80여 년 동안 카레를 생산해온 일본 고베 장인기업 MCC의 노하우를 담아 20여 가지의 향신료를 최적의 비율로 섞어 숙성시킨 카페 분말을 사용한 제품이다. 고기·야채 등 각종 재료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는 데즈쿠리 방식을 통해 손맛과 정성을 더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CJ제일제당은 백설 자일로스 설탕과 유리병·레시피북·선물상자·포장용 끈 등으로 구성된 '수제과일청 DIY세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이 집에서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돕는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왼쪽부터 돌코리아, 죠스떡볶이, 풀무원.

국순당 막걸리 아이싱 1300만캔 판매 돌파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은 캔 막걸리 '아이싱'이 2012년 8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340만캔이 팔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분에 10개씩 팔린 셈이다.

아이싱의 인기는 저알콜·편안한 목넘김·휴대 간편성 등 RTD(Ready To Drink) 트렌드에 맞춰 젊은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이싱은 국내 막걸리 최초로 열대과일 첨가 막걸리로 자몽과즙을 첨가했다. 기존 막걸리 대부분이 6%인 알코올 도수를 이 술은 4%로 낮춰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포장디자인도 막걸리 분위기를 완전히 배제해 간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캔(Can) 형태로 개발돼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아이싱은 해외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아 2013년 1월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2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박지원기자

오리온 "포카칩 연매출 1300억원…스낵 최초"

오리온은 지난해 포카칩 매출액이 1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스낵시장에서 단일 브랜드 제품의 연매출이 1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포카칩이 처음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포카칩의 지난해 12월 한달간 매출액은 109억원으로 900만 봉지가 팔렸다. 1초에 3.4봉지씩, 1분에 200봉지가 팔린 셈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시장 조사기관 닐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4년동안 한 번도 감자칩 시장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다"며 "좋은 감자칩을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연구·투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1994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를 설립한 뒤 5년 만인 2001년 '두백'이라는 감자 종자를 개발했다.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두백은 튀겨도 고유의 감자 색을 잃지 않고 맛과 식감도 뛰어나 감자칩 원료로 제격이라고 오리온 측은 설명했다.

포카칩은 이 두백 감자를 0.123~0.134㎝ 두께로 2분 40초 안에 빠르게 튀겨 만든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정관장 홍삼원, 미국 코스트코에서 팔린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음료 '정관장 홍삼원'이 미국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에서 팔린다고 26일 밝혔다.

정관장 홍삼원은 지난 1988년 출시 이후 26년 연속 홍삼음료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동안 홍삼원이 미국 한인 슈퍼마켓이나 현지 정관장 매장에서 팔린 적은 있지만, 코스트코처럼 대형 메이저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KGC인삼공사 미국법인 장진범 과장은 "미국 경기회복과 적극적 현지 판촉활동 등을 바탕으로 미국법인 매출이 2010년 400만 달러에서 올해 16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화장품 이름 튀어야 산다"

관련 업계 '진짜진짜' '씨빼테' 등 제품명으로 눈도장

화장품 업계가 네이밍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주 타깃인 브랜드숍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브랜드보다는 제품 이름을 기억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젊은층 사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신제품의 경우 특이한 이름으로 초반 이슈 몰이를 할 수 있어 제품 이름을 결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왼쪽부터 에뛰드 하우스 룩 앳 마이 아이즈 섀도우 시리즈, 네이처리퍼블릭 진짜진짜 촉촉한 제주 탄산 폼클렌저, 토니모리 아쿠아포린 수분폭탄 수면팩. /글로우픽 제공

네이처리퍼블릭은 감탄사를 활용한 클렌징 제품 '진짜진짜 촉촉한 제주 탄산 폼클렌저' '진짜진짜 산뜻한 제주 탄산 클렌징 워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성분과 특징을 재치있게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

에뛰드 하우스는 주요 타깃층인 10~20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독특한 이름을 지속적으로 제품에 도입해 왔다. '룩 앳 마이 아이즈 섀도우 시리즈'는 네이밍 마케팅 덕을 본 사례 중 하나로 '수줍은 손깍지' '해변에선 코코넛' '불가사의한 불가사리' 등 색상과 어울리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인기 색상인 브라운 톤의 '시럽 빼고 테이크 아웃'은 일명 '씨빼테'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입소문을 탔다.

토니모리는 수면팩에 '수분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했다. 젤 타입의 팩을 바르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수분 함유량이 높다는 의미로 지은 제품명이다.

뷰티 앱 글로우픽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살랑살랑 봄바람' 이라는 이름의 제품이라면 전체 이름을 기억하기 보다는 '살랑살랑'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매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있다"며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지만 입소문을 통한 이슈를 위해 독특한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맥도날드 '더블디럭스슈림프버거' 한정 출시

맥도날드가 29일 신제품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22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이 버거는 기존 디럭스슈림프 버거에 통새우가 들어간 패티를 하나 추가한 제품이다. 단품 가격은 5400원, 후렌치후라이와 음료가 포함된 세트는 6900원이다.

이와 함께 맥도널드는 29~31일 3900원인 디럭스슈림프 버거를 2900원으로 할인하고 핑크 레모네이드도 다음 달 22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조주연 맥도날드 마케팅팀 부사장은 "디럭스슈림프 버거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더블디럭스슈림프 버거를 선보이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동원F&B '참치는 사랑을 터치' 기부행사

동원F&B가 자사의 페이스북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부 이벤트 '참치는 사랑을 터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페이스북 기부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메시지를 남긴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77명의 이름으로 동원참치와 리챔을 담은 선물세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측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당초 효성그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열린 바 있다. 이후 동원F&B 측이 동참의 뜻을 밝혀 릴레이 소셜 기부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박지원기자

가구업계 "온라인몰 잡아라"

한샘몰·현대리바트 등 토종업계 공격 행보

가구 업계가 온라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존 매장 상품 보다 가격을 낮춰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온라인 몰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온라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첫 문을 연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가 당분간 온라인몰을 오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샘은 '샘'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한샘몰을 통해 가구 2500여 개, 위탁상품 3만 여개를 포함한 3만 2000여 개의 생활용품 등을 판매 중이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2008년 매출 173억원에서 2013년 93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5년 만에 5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샘몰 매출은 전년 보다 약 25% 신장했다.

20~30평형대에 거주하는 20~30대를 주 고객층으로 하고 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온라인에서만 55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2009년 75억원에 불과했던 온라인 매출은 6년 만에 약 7.4배 성장했다.

이 업체는 지난 8월 모바일 구매 기능을 추가해 통합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종합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했던 기존 판매 전략에서 자사몰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판매를 강화했다. 이 효과로 오픈 이후 4개월 간 신규 고객 수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6%, 매출은 69% 증가했다. 모바일 구매 기능 추가 이후 모바일 매출 비중도 온라인 전체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까사미아도 전용 브랜드 까사온을 지난 2008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론칭 이후 최고 311%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1% 매출 성장을 기록, 지난해에만 64% 매출이 신장했다.

최근에는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온라인 브랜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천점에 까사온 쇼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업계는 온라인몰과 전용 브랜드 운영이 '고가 가구' 인식을 제고하는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케아와 같이 저가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샘은 매장 제품 보다 2%, 많게는 40%까지 저렴하게 편성하고 있다. 또 리바트는 '핫 50' '소셜 프라이스 판매 제도' 등 할인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기 품목을 대량 생산해 원가를 낮춰 '핫 50'을 통해 10~60% 할인 판매하고 소셜 프라이스 판매 제도를 도입해 4~6개 기획 제품을 10~50개 수량에 한해 최대 7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은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접촉할 수 있어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좁혔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며 "진입 장벽이 낮고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을 보다 손쉽게 선보일 수 있어 가구업계가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까사온 람스 2인 소파. /까사미아 제공

'홈카페족' 늘어난다

커피값 상승 탓 집에서 마시면 1년에 100만원 절약

날로 치솟는 커피값에 소비자들이 원두를 직접 구매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기 시작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이른바 '홈카페족'은 매년 20% 이상 늘고 있으며, 관련 용품 판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의 핸드드립 용품 판매율은 지난 2013년에 비해 2014년 200% 이상 뛰었다. 원두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42% 늘었다. 더불어 최근 몇 달 사이 사이폰·프렌치프레스 등의 고급 커피 추출기구의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홈카페족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비용에 있다. 스타벅스·카페베네 등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000원 안팎으로, 매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연간 총 146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반면 집에서 핸드드립 기구를 사용해 내려 마시는 경우 이보다 저렴하다. 어라운지 판매 제품을 기준으로 가정해볼 때 하리오 드립세트와 1년치 종이 필터 가격은 5만원, 여기에 200g에 1만5000원짜리 원두를 구입해 1잔에 7g씩 추출하면 1잔에 535원 정도다. 연간 커피값은 32만8500원이다.

홈카페족이 늘면서 관련 클래스도 다양하게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내용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어라운지는 커피 마니아들을 위해 다양한 커피 추출 기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 역시 매달 커피 관련 정보와 함께 핸드드립 커피 실습·로스팅체험 등을 주제로 커피 아카데미 열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탐앤탐스도 최근 홈카페 과정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핸드드립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출법을 알려주며 5회에 2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에서 내려마시는 커피는 비용이 절약될 뿐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원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홈카페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안전 대한민국 만들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동영상' 3종 무상 제공

산업현장의 근로자나 안전관리자가 작업별 위험요소나 예방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보급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 ▲크레인 ▲가스용접 작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3종을 제작·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영상은 실제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현장감 있게 제작됐으며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 종류별 위험요소와 올바른 작업방법, 작업도구·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공단은 안전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스트레칭 체조 요령과 올바른 중량물 취급 요령도 담았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앞으로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사업장이나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유튜브(Youtube)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선물세트 알뜰구매 미리 주문하세요~

강강술래, 사전구매 시 최대 55% 할인

한우·양념갈비 등 인기품목 40여종 판매

불황에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설 명절 선물세트 준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사전예약 판매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내달 3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최대 55% 할인율을 제공하는 설날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품목도 2만원대 가공식품부터 30만원대 한우명품 세트까지 약 40여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크게 넓혔다.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정육세트의 경우 한우불고기1호(1.5kg)는 5만4000원, 한우불고기2호(2.25kg) 7만2000원, 술래양념1호(16대) 9만원, 술래양념2호(24대)는 12만6000원에 판매한다.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9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2만6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2.4kg·냉동) 17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낸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49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9만9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도 4만6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퀸, 온천·스파를 즐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와 '슈퍼잼 스토리' 등 갈벗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pjw@

맹모 유혹… 송도 vs 배곧 '교육신도시' 경쟁

배곧신도시는 아직 서울대 유치 협약 단계

교육신도시 타이틀을 놓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가 자존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송도는 국제학교와 자사고, 배곧은 서울대를 내세우며 교육열 높은 맹모(孟母)들을 유인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고양 등과 함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송도국제도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송도더샵 퍼스트파크'가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는가 하면, 오랜 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송도더샵 그린워크 1~3차' 아파트도 저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판매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더라도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인천 연수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2316가구에서 11월 610가구로 1706가구 감소했다. 경기도 김포시(2570가구), 경기도 고양시(1963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분양 감소를 보였다.

거래 물량도 늘어 지난해 4분기에만 송도동에서 538건의 아파트가 계약됐다. 앞서 3분기에는 293건에 머물렀다.

오랜 기간 침체돼 있던 송도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게 된 원인으로는 '교육'이 1순위로 꼽힌다. 송도 명문으로 자리 잡은 채드윅 국제학교를 비롯해 오는 3월 개교하는 포스코자사고 입학을 위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

송도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치동·목동 등지에서 국제학교로 통학하다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최근에는 자사고 때문에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포스코자사고는 인천지역 거주민에게 100% 배정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더샵 그린워크1차 계약자 10명 중 4명이 '교육 때문에 집을 샀다'고 했을 정도로 지역 교육환경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개발 중인 시흥 배곧신도시는 이름 자체가 '배움의 터'라는 뜻이다. 특히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배곧신도시에는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선다.

지난해 한라는 서울대와 연계한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단지 내 어린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옆으로 서울대 사범대 협력 초·중·고도 예정돼 있다. 향후 서울대-시흥시 공교육혁신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기대된다.

한라 관계자는 "시흥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안산, 부천, 서울 금천구 등에 배곧신도시의 교육 비전에 대해 홍보했다"며 "계약자 중 상당수가 교육여건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경우 시흥시에서 서울대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확정만 되면 그 어느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아직 협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는 송도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광교·위례·광명 오피스텔 '골든위크'

1월 마지막 주말 광교·위례·광명에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가 일제히 문을 연다. 이들 모두 최근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교', 효성 '광명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현대산업개발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단지는 수원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41~77㎡, 총 172실 규모다. 앞서 지난해 말 공급돼 4일 만에 계약을 마감한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와 함께 주거복합단지를 이루게 된다.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돼 주거대체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77㎡는 테라스하우스로 지어진다. 방+방+거실+방으로 이뤄진 4베이 판상형 구조에다가 방과 거실 전면에 약 39㎡에 이르는 테라스가 확보돼 광교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 중소형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보이게 됐다"며 "호수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평균 2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완판에 성공한 서울 서부 광명역세권지구에서는 '광명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가 눈길을 끈다. 23~33㎡, 616실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말 대우건설, GS건설, 호반건설이 공급한 오피스텔에 300만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있다.

분양시장 최대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될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는 19~59㎡, 319실로 구성됐다. 방-거실 분리형이 75실(28~39㎡), 투룸형이 57실(47~59㎡)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6월)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청약돌풍을 일으킨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광교·광명에 비해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지난해 분양된 오피스텔도 아직 완판이 안 된 터라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주거상품 위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많지 않다"며 "인근 문정지구만 보더라도 오피스텔 공급과잉 현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투자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힐스테이트 광교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대림산업, 계약자 초청 문화행사 가져 대림산업은 26일 서울 경북궁역 인근 대림미술관에서 아파트 계약자 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인 '오렌지 아트스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대림미술관 '린다 메카트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무주택자 10명 중 4명 "집값 오를 것"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희망 구매 가격은 약 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들이 희망한 주택가격은 평균 2억854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평균 가격은 4억51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억2000만원 높았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66.8%), 단독주택·다가구(22.8%), 연립·다세대·빌라(7.7%) 순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보다 5.4% 포인트 높은 77.3%가 향후 주택 구입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만 보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85.1%로 좀더 높았다. 일반가구에서는 37.7%가 올해 주택가격 오름세를 예상했지만 무주택가구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40.2%로 더 높았다.

전·월세 등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교통·직장과의 거리(27.5%)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월세금 가격(22.0%), 자녀의 교육여건(16.7%), 쾌적한 거주환경(16.6%) 순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6%가 '상품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33.3%)'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대우건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지난 2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에서 임직원 가족과 함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 93명이 참여해 털모자를 뜨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모자는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통해 저체온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봉사의 의미와 추억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대우건설은 다양한 가족초청행사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 건설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박선옥기자

'허삼관'으로 돌아온 하지원

"억센 엄마, 궁금하지 않나요?"

즐기며 촬영할 수 있었던 '힐링'의 현장

"좋아하는 연기, 지겹거나 힘든 적 없어"

하지원(36)이 엄마가 됐다. 그것도 세 아이를 둔 친구 같은 엄마다. 철부지 남편이 몫마땅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족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엄마다.

고생도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배우 하지원에게 영화 '허삼관'의 엄마 옥란은 자연스러운 행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지원이 이 도전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센' 캐릭터는 해봤지만 '억센' 캐릭터는 안 해본 하지원에게 옥란은 맞지 않는 옷과도 같았다.

그런 하지원을 '허삼관'으로 이끈 것은 시나리오에 대한 호감, 그리고 감독 겸 주연을 맡은 배우 하정우의 한 마디 말이었다. "정우 씨가 저와 옥란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뭐가 나와 어울린다는 거지? (웃음) 그런데 '허삼관'은 시나리오를 읽고 난 뒤 그 잔상이 머리 속에 남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옥란을 제가 표현하면 어떨지 말이죠."

연기 인생 첫 엄마 연기였지만 하지원은 철저한 캐릭터 분석 대신 자연스럽게 역할에 녹아드는 방식을 택했다. "모성애는 계산한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놀았어요. 아이들과도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왔죠. 최대한 '릴렉스'하면서 찍었어요." 배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하정우 감독의 배려, 그리고 많은 선배 배우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촬영 현장은 드라마 '기황후'의 연이은 밤샘 촬영으로 지쳐 있던 하지원에게 크나큰 '힐링'이 됐다.

영화는 제목처럼 하정우가 연기하는 허삼관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 작품마다 늘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왔던 하지원이 하정우의 뒤를 받쳐주는 모습은 일면 낯설다. 그러나 하지원은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닌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한 영화였다"며 "엄마라는 역할을 이렇게 예쁜 영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액션 같은 장르영화에서 주로 활약한 하지원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허삼관'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남았다.

2000년 '진실게임'으로 충무로에 첫 발을 내딛은 하지원은 여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을 과감하게 소화하며 15년 남짓한 긴 시간을 많은 작품들로 채워왔다. 배우로서 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있었을 법 하다. 그러나 하지원은 "배우라는 직업이 지겨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배우라는 게 일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웃음)."

엄마 연기까지 소화해낸 하지원에게 또 다른 도전이 남아 있을까. 하지만 하지원은 "아직 욕 연기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옥란처럼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생각은 없다. 하지원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음의 무언가를 미리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배우로서도 현장을 더 많이 즐기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디자인/최송이

star bag

프로젝트 앨범 '영' 발표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다음달 2일 프로젝트 앨범 '영(Young)'을 발표한다. 3월 6~8일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합동콘서트도 진행한다. 독특한 보이스의 자이언티는 지난해 '양화대교'로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크러쉬는 SBS '괜찮아 사랑이야' OST '잠 못드는 밤'을 통해 실력을 인정 받았다.

드라마 '힐러' OST 불러

가수 **저스트**가 KBS 2 월화드라마 '힐러' 다섯 번째 OST '그대 때문에'를 불렀다. 저스트의 단백하지만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귀를 사로 잡는 가창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상처와 외로움을 가슴에 묻고 사는 '힐러' 속 등장 인물들의 마음과 어우러져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준과 父子 관계 호흡

유준상이 SBS 새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 출연한다. 이준과 엘리트 부자지간을 연기한다. 그가 분한 한정호는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 귀족 교육을 받고 자란 법무법인 대표다. 정·관·재계 요인들의 비리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캐릭터다. 내달 23일 첫 방송.

설렘 가득 결혼식 사진 공개

남상미의 결혼식 사진이 공개됐다. 새 신부의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이다.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우아한 웨딩드레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남상미는 동갑내기 남편과 2013년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24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타임머신' 타고 온 가수들

1960년대 걸그룹 바버렛츠·1990년대 뉴잭스윙 래퍼 기린 '인기'

사람도 기술도 노래도 최첨단을 달리는 2015년 마치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한 가수들이 음악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3인조 걸그룹 바버렛츠(안신애·김은혜·박소희·사진 왼쪽)는 스스로를 '시간여행 걸그룹'이라고 소개한다.

바버렛츠의 무대를 보면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 여성보컬그룹 김시스터즈나 미국의 앤드류시스터즈, 로네츠가 떠오른다. 리더 안신애는 "우리는 바버샵 아카펠라를 한다. 바버샵 아카펠라는 20세기 초반 미국 이발소에서 유행한 남성 중창단의 음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바버렛츠는 음악뿐만 아니라 외모도 예스럽다. 정수리를 가득 부풀린 '뽕머리', 새초롬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반짝이 드레스까지 완벽한 복고풍이다.

언더신에서 이미 특색있는 걸그룹으로 인기를 모은 이들은 지난해 KBS1 '가요무대'에 출연해 한명숙의 '노란샤쓰의 사나이'를 부른데 이어 지난 3일 KBS2 '불후의 명곡' 신년특집편에서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을 맛깔나게 살려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선배들의 음악을 흉내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안신애는 모든 노래를 직접 만든다. 그는 "처음 셋이 모였을 때부터 콘셉트를 확실히 잡고 시작했다"며 연구를 거듭해 지금 바버렛츠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한도전' 특별기획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에서 시작된 1990년대 열풍에 한 발 앞선 가수가 있다. 바로 가수 기린(본명 이대희·오른쪽)이다.

기린의 노래 '요즘 세대 연애 방식', '잼(Jam)', '히위고 나우' 등은 최근 힙합신 트랜드와 다소 거리가 있다. 그가 추구하는 음악은 바로 뉴잭스윙이다. 뉴잭스윙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미국 R&B 가수 테디 라일리가 유행시킨 장르로 바비 브라운, 현진영, 듀스 등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다.

기린은 "어렸을 때 가수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걸 지금까지 이어오는 중"이라며 "지금도 내 눈엔 그때 가수들이 여전히 멋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린은 음악만 1990년대를 추구하지 않는다. 앨범 커버, 패션, 뮤직비디오까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촌스러움으로 도배했다. 1990년대 길거리 카세트 테이프 노점에서 팔법한 느낌의 앨범 재킷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지겨워' 뮤직비디오는 직접 찍고 편집했다. 의도된 촌스러움이긴 하지만 내가 영상 편집에 서툴러 촌스럽게 나온 것도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음악은 복고풍이지만 가사만큼은 현재를 다루고 있다. 기린은 "무조건 1990년대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는 내가 느낀 것을 담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애니 음악 축제 '란티스' 서울 무대

애니메이션 음악 축제 '란티스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열린다.

'애니송 월드 투어 란티스 페스티벌 2015 인 서울'은 오는 4월 4~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악스 코리아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연엔 뮤즈·잼 프로젝트·올드코덱스·아이리·자크·나노라이프가 출연한다.

뮤즈는 애니메이션 '러브 라이브' 9명의 주인공이 한 팀이다. 애니메이션 '러브 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게임으로 국내에 상당한 마니아 팬이 있다.

티켓 예매는 30일 정오 인터파크 단독으로 진행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온라인 핫 이슈

이세은, 3세 연하 금융맨과 비공개 결혼

배우 이세은(사진)이 결혼한다.

26일 이세은의 소속사 G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세은은 3월 6일 3세 연하 금융맨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랑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3세 연하남이다.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이세은은 1999년 MBC 28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2002년 '야인시대'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보디가드' '대장금' '굳세어라 금순아'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 '연개소문' '근초고왕'에 출연했다. /전효진기자

온라인 장악한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

MBC '일밤-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의 '여군특집2' 방송 직후 출연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방송된 '진짜 사나이'의 '여군특집2'에서는 배우 박하선(사진)이 할아버지가 과거 대령에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함)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꿈이 경찰과 군인이었다"며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걸그룹 에프엑스 엠버는 7cm가 넘는 팔 문신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문신 길이가 너무 길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의관으로부터 "대대장과 상의해보겠다"는 답을 받아 앞으로 방송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강예원, 이다희 등이 연일 화제를 모으며 '여군특집' 1편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다. /장병호기자

변호사·검사로 만나는 이선균·김고은

'성난 변호사' 촬영 종료… 올해 개봉 예정

이선균, 김고은 주연의 영화 '성난 변호사'(가제, 감독 허종호)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에서의 촬영을 끝으로 크랭크업했다.

'성난 변호사'는 유력한 용의자만 있을 뿐 증거도 사체도 없는 의문의 살인사건을 맡게 된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 뒤에 숨겨진 음모를 밝혀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선균이 변호사 변호성 역을, 김고은이 검사 진선미 역을 맡았다.

촬영을 마친 뒤 이선균은 "이번 현장은 점점 손발이 잘 맞아가면서 안정감도 들고 기분도 많이 좋았다. 스태프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캐릭터와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 캐릭터를 떠나 보내기 아쉬울 정도다. 스태프들 모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기분 좋게 다시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고은도 "모든 스태프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유쾌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난 변호사'는 후반 작업을 거친 뒤 올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신하균 생애 첫 사극 도전

배우 신하균(사진)이 오는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로 생애 첫 사극에 도전한다.

'순수의 시대'에서 신하균은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김민재 역을 맡았다.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태어난 인물로 막 태어난 왕국의 불안한 국경선을 외적들로부터 지켜내 전군 총사령관인 판의흥 삼군부사에 임명되는 장군이다.

신하균은 "소용돌이치는 격변의 시기에 개인의 욕망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담은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사극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보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됐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민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본인 의지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다. 돌아간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본인 의지로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순수함을 쫓아가는 인물이라는 캐릭터의 매력도 컸다"고 덧붙였다.

신하균은 이번 영화에서 조선 제일의 무장이 선보이는 전장의 리얼 액션과 난생 처음 느낀 사랑 앞에서 순수를 쫓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모두 연기했다. 첫 사극 액션임에도 칼과 활, 마상 액션을 능숙하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감성적인 연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스크린 위에 자연스럽게 펼쳤다. /장병호기자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오타니의 도전과 한국야구의 현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일본 야구단의 전지훈련은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전지훈련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을 받는 뉴스인물은 단연 닛폰햄의 오타니쇼헤이(21·사진)이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괴물선수로 입단 3년째를 맞아 연일 스포츠지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속 170㎞ 여부이다. 작년 시즌 162㎞를 찍어 일본의 토종 투수로는 가장 빠른 투수로 등극했다. 올해는 메이저리그 최강속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신시내티)에 필적하는 구속을 찍을 지 관심을 모은다. 비록 170㎞는 아니더라도 근접하는 스피드를 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투구가 제법 안정됐고 육체개조에 많은 공을 들였다. 마운드에서 주도권을 갖고 심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와인드업 투구폼으로 돌아간다. 그 동안 마운드에서 주자가 있을 때의 셋업 포지션에서 던졌는데 와인드업으로 던지면 볼에 힘과 스피드를 더 붙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승수이다. 그는 작년 시즌 11승을 거두었다. 때문에 아직은 일본을 대표하는 투수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15승은 물론 20승에 도전한다. 빠른 성장세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슈 류, 다나타 마사히로의 뒤를 잇는 일본의 괴물 에이스 반열에 도전한다.

마지막으로는 타자의 기록이다. 작년 시즌 10홈런을 날렸는데 올해는 타율 3할과 20홈런을 노린다. 올해는 타격에서도 정교함과 장타력 모두 상당한 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한국의 김성한은 1982년 프로원년에 10승-타율 3할-13홈런을 기록했다. 오타니는 21세기 신기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타니는 흥행의 기둥이다. 일본야구는 최근 스타부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오타니 같은 스타들이 꾸준히 등장해 팬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다. 관중수도 매년 20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간판선수는 해외에 빼앗기고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지 않는 한국야구에 비한다면 행복한 리그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PGA 새내기 박성준 깜짝 준우승

휴매나 챌린지 4R 7개 버디쇼… 빌 하스 22언더 우승

2014-2015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 '새내기' 박성준(29)이 휴매나 챌린지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성준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파머 코스(파72·69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잡는 맹타를 휘둘렀다.

전날 3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뽑아내며 공동 9위까지 치고 올라온 박성준은 이날 4라운드에서도 전반에 2타를 줄인 뒤 후반 11번 홀부터 줄버디를 잡으며 선두를 압박했다.

14번 홀에서는 세 번째 샷을 홀 1.2m에 붙인 뒤 1타를 줄여 4개 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선두 그룹을 1타차까지 따라 붙었다. 17번 홀에서는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버디 퍼트가 아쉽게 홀 앞에 멈춰 섰지만, 18번 홀에서 1.2m 버디 퍼트를 성공해 공동 선두로 72홀 경기를 먼저 마쳤다.

그러나 이날 박성준보다 2타 적은 16언더파로 경기를 시작한 빌 하스(미국·22언더파 266타) 역시 6타를 줄이는 맹활약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준은 하스에 1타가 모자라 맷 쿠처(미국) 등 4명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하스는 이번 우승으로 PGA 투어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수확하며 상금 102만6000 달러(약 11억600만원)를 받았다.

박성준은 지난해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를 통해 PGA 투어에 데뷔한 선수 중 한명이다. 2011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 진출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해 왔다. 일본투어에서는 2013년 바나H컵 KBC오거스타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박성준의 준우승은 지난해 10월 맥글래드리 클래식 공동 32위를 훌쩍 뛰어넘는 PGA 투어 입문 이후 최고 성적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지동원 "다음엔 대표팀 불러줘요"

연습경기서 결승골 '부활 날갯짓'

2015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 '슈틸리케호'에서 빠진 지동원(25·아우크스부르크·사진 오른쪽)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2부리그 팀과의 연습경기서 골 맛을 봤다.

지동원은 26일(한국시간) 독일 퓌르트의 슈타디온 암 라우벤벡에서 열린 그로이터 퓌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후반 11분 팀의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2014-2015 시즌을 도르트문트에서 시작했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지동원은 지난해 말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이던 2013년 임대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온 익숙한 팀이다.

지동원은 후반기 첫 경기를 앞두고 연습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전반 27분 베네딕트 뢰커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시작하며 교체투입된 카이우비가 후반 4분 헤딩 동점골을 터뜨린 데 이어 지동원의 결승골까지 나오면서 역전승을 거뒀다.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동원이 종료 직전 3-1을 만들 뻔했으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며 지동원의 활약을 전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다음달 2일 국가대표 김진수(23)가 속한 호펜하임과 18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김민준기자

삼성 5연패 '밴덴헐크 후계자'에 달렸다

새용병 피가로 스프링캠프 합류… 150km 중반 강속구 '씽씽'

통합 5연패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릭 밴덴헐크(30)를 대체할 선수 찾기에 고심중이다.

밴덴헐크는 지난해 삼성의 1선발을 맡아 13승 4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그는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뛴다.

밴덴헐크와 재계약에 실패한 삼성은 알프레도 피가로(31), 타일러 클로이드(28)를 영입했다. 이중 피가로는 시속 150㎞대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며 '제 2의 밴덴헐크'가 될 재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가로는 2011·2012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활약한 뒤 2013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해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트리플A 내슈빌 사운즈에서 중간계투로 뛰며 42경기 5승 2패 평균자책점 3.73을 올렸다.

밴덴헐크는 2012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에서 21경기(선발 19경기) 13승 5패 평균자책점 2.92를 기록하고, 이듬해 삼성과 계약했다.

삼성 입단 직전 해 성적은 밴덴헐크가 좋았지만, 피가로는 2013년 밀워키에서 33경기에 등판(3승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14)하는 등 '풀타임 메이저리거'의 경력을 쌓았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영입 전 기록을 보면 밴덴헐크와 피가로가 큰 차이는 없다"며 "밴덴헐크가 꾸준히 선발로 뛰다 한국에 온 점, 피가로는 일본 무대에서 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점에서 각각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한국 프로야구의 빠른 적응 여부다.

야마이코 나바로(왼쪽)와 삼성 라이온즈가 새롭게 영입한 용병 타일로 클로이드(가운데), 알프레도 피가로 등 삼성 외국인 용병 3인방.

밴덴헐크 역시 한국 입단 첫해인 2013년 7승 9패 평균자책점 3.95로 부진했다. 하지만 삼성은 시즌 중 밴덴헐크를 2군으로 보내 슬라이드 스텝 등을 손보며 '밴덴헐크의 한국화'에 힘썼다. 지난해에도 4월 2군에서 양일환 투수 코치, 가도쿠라 겐 코치와 함께 투구 자세를 손봤다.

류중일 감독은 "밴덴헐크를 에이스로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며 "피가로가 한국 야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삼성의 괌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피가로는 2월 1일까지 체력과 구위를 다진 후, 2월 중순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펼쳐지는 평가전에서 실전 투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기운 보강하는 육류도 체질에 맞게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추위에 움츠러들어 생활하다 보면 기운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원기회복에 좋은 육류를 섭취해주면 든든한 보양식이 된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육류 위주의 식단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육류 섭취는 성장기 아이들의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고 환자나 노인들의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에 풍부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구성성분이며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의 활성화에도 좋다. 육류 역시 체질에 맞게 섭취해야 건강에 효과가 있는데 손발이 차고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소고기, 닭고기 등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육류가 좋다. 소고기와 닭고기는 비위(脾胃)에 좋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특히 뼈와 근육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철분·아연·비타민 A·비타민 B 군이 풍부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좋다. 몸이 많이 찬 사람들이라면 뜨거운 성질을 가진 양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열성 식품에 해당하는 양고기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활성화 시켜주며 몸 속의 차고 습한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몸이 찬 사람들이라면 소고기나 닭고기, 양고기 대신 찬 성질을 지닌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 역시 기운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소고기보다 비타민 B1 함량이 10배가량 많아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좋고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몸이 찬 사람들의 경우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성질을 지닌 부추, 마늘, 양파 등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부추나 마늘, 양파는 모두 자양강장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 증진, 기력 회복 같은 효과는 배가시키고 육류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은 낮춰준다.

기본적으로 육류를 섭취할 때 채소 섭취를 늘려야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채소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육류의 독을 제거하고 탁해질 수 있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육류의 단점을 잘 보완한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구직활동 중인데 행보가 궁금해요
식품업종 인연… 언행 주의해야

Q 아디다스츄리닝 남자 83년 2월 17일 음력 오전7시

서울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와만 일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껴 언젠가는 고향인 대전으로 이직을 할 것 같아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 쉽게 이직을 알아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11월 퇴직을 결심하게 되어 대전으로 내려와 지인의 회사에 영업직으로 원서를 넣어봤으나 경력이 맞지 않아 떨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A 음력 2월지나 식품직종으로 인연이 되는 취직이 열려있습니다. 다른 변화에 선뜻 차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 인연이 된다면 어려운 일이라 여기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발전의 동기가 되어 7월에는 지금보다는 안정이 되겠으나 나보다 나이어린 선배 경력자와 소소하게 트러블이 일기도 하니 언행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11월에 급여가 적어 다시 이직을 생각한다고 보는데 그리 된다면 다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이성을 만난다면 상처를 입는 형국이니 2016년 초기에는 복잡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정은 '화산의 형상'에 일지에 일인(日刃)이니 대개 완고하여 고독과 연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점으로 예의바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상대를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자비로우며 생각의 폭이 넓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고 동정심이 많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이나 능력 외에서 운신을 하려면 심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진로가 수정되어 빈번한 변화를 야기하는데 기대와 결과는 어긋나기 십상입니다. 순리라는 말이 있는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 앉혀 기획하고 자신을 연마하면 이루지 못할게 없습니다. 타고난 자질을 살려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애초에 준비가 안 되어 떨어진 것이니 다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주구조는 생월지의 사주 뿌리 속에서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도 있으므로 정직한 학자풍에 전통의 계승을 중요시 하는 직업도 인연이 되고 상업의 역마 기운도 있으니 과거에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4	6	
			2				9	
3				6			8	2
						1	3	
	6		8		4		2	
	7	4						
4	2			9				3
	5				1			
	3	6	7			5		

				4		5	9	
1		5	9					
					7	6		4
		6	7					5
	1			9			6	
8					4	1		
6		9	3					
					5	9		2
	7	8		2				

스도쿠 정답

7	8	2	9	1	3	4	6	5
6	4	5	2	7	8	3	9	1
3	1	9	4	6	5	7	8	2
5	9	8	6	2	7	1	3	4
1	6	3	8	5	4	9	2	7
2	7	4	1	3	9	6	5	8
4	2	1	5	9	6	8	7	3
9	5	7	3	8	1	2	4	6
8	3	6	7	4	2	5	1	9

3	6	7	8	4	2	5	9	1
1	4	5	9	3	6	7	2	8
9	8	2	1	5	7	6	3	4
2	9	6	7	1	3	8	4	5
7	1	4	5	9	8	2	6	3
8	5	3	2	6	4	1	7	9
6	2	9	3	8	1	4	5	7
4	3	1	6	7	5	9	8	2
5	7	8	4	2	9	3	1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월 27일 (음 12월 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실수는 인정하는게 좋습니다. **60년생** 대인관계에 최선을 다하세요. **72년생** 자만심때문에 꼬일 수 있으니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상처를 줄 수 있는 직선적인 말은 피하세요.

49년생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61년생**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73년생** 뜻밖의 여행지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5년생**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50년생 급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세요. **74년생** 피곤할 수 있으니 집에 일찍 귀가하여 쉬는게 좋습니다. **86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들을 수 있으니 언행을 삼가하세요.

51년생 기대한 바를 이루기 힘든 하루입니다. **63년생** 마음을 비우고 욕심은 삼가하세요. **75년생** 뜻을 세워 정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7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52년생 모든 일이 막힘이 없고 평안합니다. **64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76년생** 과로하지 말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88년생** 정면돌파가 필요합니다.

53년생 모든 것이 무난한 순조로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일이 잘 풀리지만 베푸는 마음도 함께 필요합니다. **77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89년생** 쓸 데 없는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54년생 길이 험난하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66년생** 혼자 삭히지 말고 스트레스는 친구와 함께 푸는게 좋습니다. **78년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한가지에만 집중하세요. **90년생**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55년생 기대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6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하게 행동하세요. **79년생** 바깥일보다는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세요. **91년생**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56년생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68년생**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80년생** 칭찬받는 일이 있지만 겸손하면 더욱 좋습니다. **92년생**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57년생 과유불급 지나치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59년생** 주위의 제안은 많은데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1년생**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93년생**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58년생 무기력해하지 말고 적당히 활동하며 긴장감을 가지세요. **7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되도록 피하세요. **82년생**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세요. **94년생** 생각은 많으나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59년생 오랜 만에 벗을 만나 즐거운 하루입니다. **71년생** 지나간 일은 빨리 잊는게 좋습니다. **83년생** 거래가 있다면 느긋할 수록 유리합니다. **95년생** 처음 생각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니 빨리 실행하세요.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는 다양한 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금연보조제 내게 맞는 스타일은

식약처, 금연제품 종류·사용법 안내

새해 들어 니코틴 패치나 껌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금연제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13종) ▲궐련형(5종) ▲치약형(2종) 등 총 20개 품목이다. 이들은 니코틴 없이 흡연 욕구를 줄이고 흡연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전자식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연초유'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초유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으로 구성된 액상이 카트리지를 전자장치에 장착해 2~3번 흡입한 후 천천히 내뿜으면 된다. 권장량은 하루에 카트리지 한 개다.

궐련형은 불을 사용하는 제품과 불 없이 사용하는 금연파이프 제품이 있는데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하루에 10개피 가량이 적정량이다. 또 금연파이프는 하루에 4~5개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임산부나 수유부 역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담배 대신 몸에 니코틴을 공급함으로써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도 있다. 껌과 트로키제, 패치제 등 총 19종의 품목이며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껌은 흡연 충동이 있을 때 30분 정도 씹으면 효과적인 제품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씹으면 떨림이나 정신 혼돈, 신경반응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제는 하루에 30개피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또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패치제는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나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 제품에는 니코틴이 함유돼 있어 제품을 사용할 때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아울러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또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당하지 않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연 치료 전문의약품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있다. 이들을 복용하면 졸림이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할 경우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은 피해야 한다. 게다가 복용 중 우울증이나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김용판 전 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황재용기자

해상 재난훈련 마친 해경안전서장들 27일 공식 취임을 앞둔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장 17명이 해상 재난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총경급 간부들로 26일까지 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학생, 기업서 직접 실무 배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대학생의 현장 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과 기업 간 인력수요 불일치 현상을 없애고자 올해 4년제 대학 10곳을 선정해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란 한국기술교육대가 2012년부터 교육과정의 1년 이상을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는 장기현장실습제(IPP)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대학별로 150명 정도며 이들은 500개의 기업의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의 분야로 파견돼 4~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게 된다. /황재용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실시

서울시가 찾아가는 복지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더함복지상담사' 130명을 새롭게 선발하고 26일부터 6개월간 위기가정 발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함복지상담사를 처음으로 채용해 총 6만 가구를 지원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더함복지상담사는 서울시에 5명, 25개 자치구에 125명이 배치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와 공과금이 체납된 가구 등이 우선 상담 대상이 된다. /황재용기자

인사

■ **법제처**

◇부이사관 파견 ▲사회문화법제국 조대현

◇서기관 파견 ▲경제법제국 김용성

■ **중소기업청**

▲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엄진엽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백명호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심대용

■ **메리츠종금증권**

▲ 투자금융사업본부장 함형태

■ **코트라**

▲ 인재경영실장 손수득 ▲ 동남권 코트라지원단장 황중하 ▲ 코트라글로벌연수원장 정종태 ▲기업역량강화실장 이상광 ▲ 글로벌기업협력실장 김상묵 ▲ IT사업단장 한상곤 ▲ 통상지원실장 양국보 ▲ 외국기업고충처리단장 노철 ▲ 고객전략실장 박봉석 ▲ 홍보실장 김기준 ▲ 비서실장 전춘우 ▲ 기획팀장 박성호 ▲ 강원권 코트라지원단장 기세명 ▲ 건설플랜트사업팀장 정형식 ▲ 조직망지원팀장 이성수 ▲ 수출유망기업팀장 유재원 ▲ 개발협력팀장 김종경 ▲ 일류화사업팀장 김상순 ▲ 정부3.0추진팀장 장수영 ▲ 고객지원팀장 김성수 ▲ 글로벌취업팀장 고상영 ▲ 선진시장팀장 고상훈 ▲ 경제외교지원팀장 이금하 ▲ 서비스금융산업유치팀장 신승훈 ▲ 글로벌CSR사업단장 이장희 ▲ 글로벌창업팀장 정영수

■ **경기개발연구원**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시·군 농정지원단장 ▲ 화성시 남궁관철 ▲ 남양주시 이한용 ▲ 수원시 이택선 ▲ 광명시 박수경 ▲ 동두천시 김홍균 ▲ 의정부시 이갑주 ▲ 이천시 임창덕 ▲ 양평군 오용구 ▲ 과천시 박정현 ▲ 의왕시 이세진 ▲ 포천시 이성재 ▲ 연천군 김종연 ▲ 군포시 신민호 ▲ 부천시 나영수 ▲ 가평군 이정호

■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 지점장 ▲ 백마 이근복 ▲ 일산덕이 장해진 ▲ 일산식사 이규호 ▲ 일산역 김태호 ▲ 일산호수 안재동 ▲ 주엽 이형만 ▲ 킨텍스 김경환 ▲ 화정역 조유영 ▲ KT고양 류성열 ▲ 마사회 허옥남 ▲ 원문동 이정우 ▲ 광명서 김재형 ▲ 북변 조석범 ▲ 풍무중앙 임장현 ▲ 한강신도시 최근호 ▲ 금곡 오종섭 ▲ 보산역 김태헌 ▲ 부천신흥 이상우 ▲ 부천테크노파크 신동식 ▲ 상동 조준범 ▲ 소사남 이흥렬 ▲ 송내동 박경준 ▲ 심곡동 선규현 ▲ 모란 조명숙 ▲ 분당수내동 김중형 ▲ 분당테크노파크 길완종▲ 서판교 최형모 ▲ 서현아이원 이정희 ▲ 성남신흥동 정현범 ▲ 성남중앙로 박수환 ▲ 은행동 임종권 ▲ 판교역 이상도 ▲ 판교테크노밸리 문희종 ▲ 황송 김대용 ▲ 효자촌 이주호 ▲ 광교 김상곤 ▲ 남수원 강영근 ▲ 동수원 이병형 ▲ 문화로 박창용 ▲ 서둔동 김인엽 ▲ 송죽동 오성환 ▲ 수원대평 이윤택 ▲ 수원북문 도영인 ▲ 수원역 진종열 ▲ 수원연무 조한길 ▲ 수원영통 김진배 ▲ 신매탄 이덕영 ▲ 원천동 이진영 ▲ 율전 이관용 ▲ 시흥옥구 허성원 ▲ 안산중앙동 김장묵 ▲ 안산도매시장 윤달현 ▲ 월피동 김길섭 ▲ 안성공도 고재곤 ▲ 덕천 김판수 ▲ 안양남 정용왕 ▲ 인덕원 최영 ▲ 평촌 김남수 ▲ 평촌중앙 김양수 ▲ LS타워 이대섭 ▲ 여주남 송선섭 ▲ 수지 김순희 ▲ 수지만현 남봉석 ▲ 용인동백역 최명규 ▲ 죽전보정 유순란 ▲ 오전공단 지일환 ▲ 의왕갈미 김시장 ▲ 가능역 송병웅 ▲ 동의정부 박건국 ▲ 신금오 홍현채 ▲ 의정부 조왕제 ▲ 의정부신흥로 박헌모 ▲ 남천 이상기 ▲ 장호원 김영준 ▲ SK하이닉스 이창기 ▲ 교하중앙 이창우 ▲ 문산 이철용 ▲ 파주금빛로 이흥문 ▲ 파주운정남 강철희 ▲ 파주운정북 권순홍 ▲ 안중 정민화 ▲ 평택장당 이완수 ▲ 포승공단 성병용 ▲ 송우 강태승 ▲ 신장 강정수 ▲ 동탄 박강석 ▲ 동탄남 류인석 ▲ 동탄중앙 유병철 ▲ 발안 손영일 ▲ 화성공단 이필용 ▲ 신갈 이형원 ▲ 송탄남 홍의표

■ **농협 인천본부**

▲ 부본부장 김용희 ▲ 강화군지부장 문태석

<지점장> ▲ 동인천 김학식 ▲ 만수동 김학규 ▲ 문학 류승정 ▲ 부평금융센터 조현준 ▲ 산곡동 신용균 ▲ 송림동 박만규 ▲ 연수 이영신 ▲ 인천 가좌 용구연 ▲ 인천 삼산 이준호 ▲ 인천 소래역 이경세 ▲ 작전동 서진명 ▲ 청천동 신목현 ▲ 구월 엄문호 ▲ 부개 이주호 ▲ 인천 고동명 ▲ 인천시청 엄현덕 ▲ 일신동 심상민 ▲ 주안 송웅섭 ▲ 청라시티 권용원 ▲ 강화군청 이상대 ▲ 인천대 박창원

부고

▲ 하기도씨 별세, 강갑출(YTN 전 보도국장)·진호(개인사업)·일성(진주농약사 대표)·부성(기아자동차 부장)·혜란씨 모친상, 허경국(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부장)씨 장모상·강동민(LG CNS 대리)씨 조모상 =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 발인 28일, 02-2072-2020

▲ 박종수씨 별세, 박언석(JW중외신약 이사)씨 부친상 = 26일 오전 3시, 경기도 수원연화장 장례식장 해당화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31-218-6500

"내란 회합 참석 안했다" 헌재에 명예훼손 손배소

옛 통진당원 청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A씨와 B씨는 이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피고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이다. 소송 가액은 600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 명에 포함돼 이름, 지위, 경력 등이 열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사건 증거,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의 진술, 정당해산 심판 법무부 제출 자료 어느 곳에도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왜 참석자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안 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A씨를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회합 참석자로 B씨를 언급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온전한 세월호 인양' 도보행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며 진도 팽목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과거사 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28일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지난 21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회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에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저질 홍삼음료 판매한 일당 검거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첨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해 국내외에 판매한 권모(57)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혼합음료 10만병 가량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와 오만,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가공업이나 제약회사 등 정식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약재 시장에서 당기 등 약재와 홍삼을 구입해 물과 함께 끓이고 여기에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혼합했다.

그리고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한 이 음료를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홍보했다.

이 제품은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돼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방식으로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이 제조한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은 검은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제품인 양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 식·의약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몇 차례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한 차례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선준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